귀신들의 에덴을 없앨 차례

(누가복음 11:24~26)

24.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6.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귀신들의 에덴을 없앨 차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귀신들의 에덴을 없앨 차례'
귀신들의 에덴이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마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물이 없는 곳이란 광야나 사막을 의미하지만 귀신이 어리석어서 정말로 광야나 사막에서 헤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곧 귀신에게도 갈증 즉 목마름이 있음을 뜻합니다.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의 바람은 돈 많이 버는 흑자 경영일 것입니다.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갈망은 부흥일 것입니다. 또 부모의 갈망은 자녀들이 엘리트 코스를 밟는 것이고, 환자의 갈망은 건강입니다. 귀신 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라고 하였습니다. 귀신들 또한 안식을 구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귀신 나름의 안식과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얻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만 이러한 귀신의 성향을 종합해보면 인간과 다름없이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채우심을 통해 기쁨과 만족의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고 기쁨의 에덴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창조단계에서부터 기쁨과 연관을 갖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의 추구는 귀신에게 또한 존재합니다. 귀신들도 나름대로의 기쁨의 동산을 원합니다. 귀신들의 왕인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인류에게서 에덴을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기쁨이 없는 세상에서 가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

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해주셨고,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함을 통해 에덴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은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의 에덴을 빼앗을 권한도 갖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의 에덴을 빼앗기 위해서는 먼저 귀신들의 에덴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라고 하였듯이 귀신들의 에덴은 사람 안에 존재합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귀신이 기뻐하는 귀신 방식의 안식을 얻는 에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귀신의 에덴을 빼앗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조건에서 귀신이 좋아하는 에덴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깨달을 때에 나부터 귀신의 에덴이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귀신의 에덴이 되어버린 타인을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24~26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전체적인 연관성이 느껴집니다. 독립적인 내용들이 단락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11장 전체를 하나의 주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을 단순화시키셔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5~8절까지는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십니다. 9~13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로 요약할 수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권면의 말씀이 언급됩니다. 14~23절까지는 주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으셨으나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었다고 논쟁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와 사탄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하여 주기도 내용을 강청하는 기도의 교훈으로,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 주기도문에서 드러나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주기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귀신의 에덴동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숙소로 삼아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기도의 의미를 담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귀신들에게는 초호화 호텔과 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어제는 방송이 없는 날이었기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다가 7시가 좀 넘어서 혼자 맥도날드에 가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2층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주기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데, 반대편 버스정류장에 한 아주머니가 나물이 가득 든 보따리를 들고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 보따리가 워낙 커서 집까지 가시려면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그런데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주머니 곁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물을 삽니다. 고작 10~15분 남짓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큰 보따리에 담겨 있던 나물이 다 팔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보따리를 풀고 좌판을 벌였던 것도 아닌데, 나물을 다 파시고 나자 걸어서 버스 정류장을 그냥 떠나버리셨습니다.

이러한 현장을 보면서 마치 주기도의 해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나물 파는 아주머니와 같으니 길 가는 사람들에게 나물이 다 팔리자 버스를 타지 않고 정류장을 떠났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2절에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의 시작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크기의 공백이 있어서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한 어마어마한 흡입력이 작용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된다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 마음의 흡입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총동원되고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결혼한 사람에게는 배우자의 이름이 담겨있을 것이고, 부모에게는 자녀의 이름이 담겨있을 것이며, 일하는 사람에게는 직장의 이름이 담겨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담은 마음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로부터 기쁨을 빨아들이려고 합니다. 또 그러한 이름이 많을수록 흡입력은 분산됩니다. 돈이라는 이름을 담았으면 돈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하고, 건강이라는 이름이 들어와 있으면 실제로 건강한 상태를 빨아들여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조금 담겨있을 수는 있으나 결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존재하여 마음의 흡입력이 집중되는 상태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실 것이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과 행동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무거운 나물 보따리를 든 아주머니가 버스 정류장에 서서 나물을 다 팔고 걸어서 돌아간 것이 주기도문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결혼한 사람이 마음에 배우자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행복이 기다리는 곳까지 배우자 이름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버스를 타고 가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보따리에 짊어지고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대로 하자면 행복이라는 목적지는 버스를 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는 보따리 안에 있는 배우자 자녀 돈 건강 등과 같은 이름들을 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나물이 다 팔렸으니 버스를 탈 이유가 없어진 것처럼,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름들을 다 없앴으니 그것들을 통한 행복을 향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나물을 다 판 아주머니가 가벼워진 몸으로 돌아갔듯이, 우리는 마음속에 담겨진 이름들을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세상을 가볍게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을 찾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귀신의 에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에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결혼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결혼은 행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평생 배우자를 팔아 하나님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써 자녀를 키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 자녀의 이름을 팔아 하나님의 이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상태가 될 때에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빨아들이려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게 됩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행복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배우자의 이름을 팔아 하나님의 이름만을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게 되자 배우자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또 마음에서 자녀의 이름을 팔아 하나님의 이름만을 남게 하자 자녀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법궤만 들어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배우자든 자녀든 돈이든 세상의 이름을 담고 있는 동안에는 나물 보따리를 짊어진 것처럼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주기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귀신들의 에덴동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귀신을 더럽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의 인간관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음에 이름을 담음으로써 주체성을 발휘합니다. 돈이 있어야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마음에 돈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녀가 잘돼야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마음에 자녀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주체성입니다. 일단 무엇이든 선택했으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력에 의해 인간의 삶이 좌우됩니다. 돈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으면 실제 돈을 쥐기 위해 추구해 나갑니다. 추구하는 과정 중에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의도하는 모든 것들은 귀신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름을 담았으면 귀신의 영향력이 삶을 좌우하고, 하나님

의 이름만을 담았다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삶을 좌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곧 사탄이고 그 수하의 귀신들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은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곧 기쁨과 만족입니다. 육체로 만나는 대상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 곧 귀신에 의해 지배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적 주체성을 발휘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체성의 발현은 마음에 담는 이름이라는 부분에서만 발휘됩니다. 일단 세상의 이름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간관이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주기도의 의미를 이루어감을 통해 마음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알고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사람은 몰라도 귀신은 압니다.
사람의 눈치가 빠름을 두고 “귀신 같이 안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정말 귀신 같이 빠르게 눈치 챕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마음에 담길 때에 어떠한 기쁨과 만족이 생겨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만족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재산도 하나님을 가지는 것과 비교하자면 없는 것과 다름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며 천사들이 알고 있으며 귀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는 것과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을 가지고 젊어서 순교하는 것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귀신조차 하나님을 가지고 순교하는 것이 훨씬 값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인간만이 모릅니다. 자녀가 서울 대에 들어가는 것과 3류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으로 사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갖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아시고 천사도 알고 귀신조차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마음에 하나님을 갖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마음의 흡입력을 하늘에 집중하게 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원하게 되지 않을 것임을 귀신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인생의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쫓겨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라고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는 곧 갈증과 쉼은 바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대신 이 세상의 이름을 담고 사는 사람의 마음은 더러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더러운 상태를 귀신은 오아시스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다른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지만 이미 귀신에 들려 사는 사람들이 천지이기에 낄 곳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25절을 보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라고 하였습니다. 이 귀신이 헤매다 옛날 집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의외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말은 치우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더러운 귀신의 관점에서 보자면 더럽히는 것이 청소이고 수리입니다.

예를 들어 마피아의 입장에서 보자면 도베르만 같은 마약단속 경찰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하는데 성공하였다면 마피아들의 입장에서는 일이 깨끗이 처리된 것입니다. 이제 불법적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귀신이 나갔다 돌아와 보니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재벌들 열 명의 재산을 다 모아서 주는 것보다도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만 불렀을 뿐이지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에 모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신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잘된 일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관된 사건들이 마음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케코스메메논으로 장식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운 귀신에게 걸맞은 더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연상해 보시기바랍니다. 더럽고 누추했던 집이라도 내부를 다 뜯어내고 완전히 새로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새집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인테리어를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러운 곳을 좋아하는 귀신으로써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찌됐나 보려고 돌아왔더니 새 인테리어가 된 집에 더러웠던 온갖 기구나 잡동사니들을 다시 다 들여놓았습니다. 그 결과 내부는 새 인테리어를 하기 전보다 더 혼란하고 누추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에는 예전에 사랑하던 세상의 대상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돈 건강 출세 승진 등을 붙잡은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연결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돈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담고 돈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가치한 것들을 갖기 위해 가치 있는 것들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납 100kg을 얻기 위해서 금 100kg을 지불하고, 구리 100kg을 얻기 위해 다이아몬드 100kg

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면 마땅히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추구해서 하나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에는 세상을 담아둔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연결시킨다면 귀신이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들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얼핏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담았을 때에 세상에서는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전히 마음에서 세상을 통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면 기가 막히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제 귀신들 사이에서 자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 구비되었으니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서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귀신들에게 있어서 서민 아파트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으로 이 세상 대상들의 이름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은 귀신들에게 초호화 아파트와 같습니다. 집 없는 일곱 귀신들을 데려다가 같이 거할 정도로 완벽한 장소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보람은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통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한다면 그 마음은 귀신들의 에덴동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쫓겨나갈 불안에 처해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임박한 나라의 사람들처럼 귀신은 하루하루 조바심을 내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모셔 들이지 않고 세상 것을 잘 되기 위해 이용만하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귀신들에게는 온전한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앞선 본문에서 등장한 바리새인들에게서 발견됩니다.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들이라고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바리새인들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이어서 15절을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가장 깨끗하다 여겨지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하셨고, 27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귀신을 위해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임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본문의 일곱 귀신이 들어온 사람은 바리새인들을 칭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마음에서는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과 출세를 좋아했고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으로 행동하며 인기를 얻고자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귀신들의 에덴동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리새인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주기도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세상의 모든 이름들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 세상의 이름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죽는다는 것은 결혼한 사람에게는 배우자의 이름을 파는 것이고, 부모에게는 자녀의 이름을 파는 것이며, 직장인에게는 직장의 이름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이름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일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물 보따리를 짊어지고 버스 정류장에 섰던 아주머니가 나물을 다 팔자 버스를 타지 않고 돌아갔던 것처럼, 신앙인의 삶은 어딘가에 있다고 믿어지는 행복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온 모든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을 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지금 누리는 자들입니다. 본문 20절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야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야 손끝과 발끝과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의 의미를 담은 기도를 해나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 생활화와 주기도의 의미를 담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귀신들의 에덴동산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깨끗하게 산다고 자부

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이 책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귀신의 서민 아파트라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귀신의 초호화 아파트입니다. 귀신이 혼자 있기에는 아까워서 동료들을 데려와서 살고자하는 에덴동산과 같은 모습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주기도의 내용이 삶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귀신들의 에덴동산을 나 자신으로부터 척결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임과 동시에 위험이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한시도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셔서 주기도가 십자가를 통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해주심으로써 귀신들의 에덴동산이 멸절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